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 발표

□ 일본금융청은 최근 일본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담은 ‘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’(이하 발전전략)을 발표함.

-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 예정인 금번 발전전략은 일본금융시장이 아시아에서 주요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,

금융청의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 주요 내용

목 표	주요 내용
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	- 주식·원자재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거래소 창설 - 외국기업의 영문공시 범위 및 투자기회 확대 - 중소 금융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 강화
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	- 우량기업을 선별해 국내상장 지원 - 상장 비우량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퇴출 상시화 - 상장기업의 투자자 정보발신 공개 촉진
투자 기동력 강화	- 국제적인 채권시장인 도쿄전문채권시장 창설 - 분기보고 대폭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조치 시행

자료 : 아사히신문 관련 기사 정리

□ 금번 발전전략이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규상장기업의 퇴출 활성화, 채권전문시장 및 종합거래소 개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- 금융기관, 각 지역 증권거래소, 일본증권업협회 등은 협의회를 구성해 실적부진 등으로 낮은 시장평가를 받고 있는 신규상장기업들을 상시적으로 퇴출하고,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함.
- 또한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년 봄에 아시아 최대의 채권시장인 도쿄전문채권시장을 설립하는 한편, 현재 분리된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를 주식과 원자재 상품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종합거래소(가칭)로 통합하기로 함.

(아사히신문, 12/7)